

# '문화콘텐츠 제전' 광주 에이스페어 9월22일 개막

방송·게임 등 전시·체험 오프라인 행사 등 다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콘텐츠 가치 확장 주제

국내 최대 국제 콘텐츠 전문 전시회인 '2022 광주 ACE Fair(에이스페어)'가 오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7번째 맞는 광주 에이스페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광주디자인진흥원, 한국국제비즈니스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30여 개국, 340여 개사, 500여 개 부스가 참여하며,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회와 오프라인 기반의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라이선싱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콘텐츠 가치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OTT), 디지털 콘텐츠(실감콘텐츠, 게임, 메타버스 등) 관련 제품을 전시하고, 라이선싱 상

담회, 콘텐츠개발 컨퍼런스(CDC), 특별·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또 애니메이션과 방송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관사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WAF(Web Animation Festival)도 동시 개최할 예정이다.

WAF는 9월23일 컨퍼런스와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어워드, 9월24일 창작자 발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이를 통한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창작자 발굴 공모전은 애니메이션과 웹툰 등 2개 부문에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22개 작품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상, 광주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컨퍼런스 행사는 국내·외 콘텐츠 관련 연사 초청으로 산업계 트렌드를 공유하는 장이 될 계획이다.

또 올해로 두 번째인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어워드는 국내·외 방영된 국산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장편을 대상으로 8개 분야의 감독상과 작품상, 신인감독상, 시나리오상, 음악상 등 다채로운 시상상을 통해 애니메이션 분야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산업발전 공모에 대한 폭넓은 시상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김용범 기자

## 동구 백조아파트 등 자원순환마을 5곳 선정 광주시 자원순환 교육·거점공간 운영 등

광주시가 지난달 실시한 광주형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공모를 통해 자원순환마을 5곳을 선정했다.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부터 광주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을공동체 쓰레기 모니터링을 비롯해 주민 자원순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과 체험, 쓰레기 줄이기·재사용·재활용 실천, 자원순환 거점공간 운영이 주민 사업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별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3개 마을을 선정·지원하고, 올해는 신규 마을 3곳, 2단계 마을 2곳을 선정해 총 5개 마을로 확대했다.

선정된 5개 마을은 ▲동구 소태동 백조아파트(한울타리) ▲서구 치평동주민자치회 ▲남구 진월동 고

운하이플러스 1차(나나원정대) ▲북구 양산동 인양유치원 ▲광산구 우산동 두루두루마을관리소다.

우산동 두루두루마을관리소와 치평동주민자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단계 마을에 재선정됐다.

지난해 우산동두루두루마을관리소는 주민 대상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유가보상을 위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치평동주민자치회는 자원순환해설사 양성 및 활동, 우유팩·투명페트병 집중수거 거점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치평동주민자치회는 지난 16일 서구 5개 단체와 '고품질 자원재활용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우유팩과 투명페트병 등 고품질 자원 집중 수거·보관·처리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자

## 광주시 출산맘 나눔가게

2호점 개소...오늘부터 운영

광주 출산맘 나눔가게 2호점이 25일 문을 연다.

출산맘 나눔가게는 출산·육아용품의 기부·교환·무료나눔을 통해 육아용품 구입 부담을 줄이고, 출산맘과 육아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해 육아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용 방법은 사용 연령이 지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육아용품들을 기부하고, 상호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해 가거나 무료로 나눔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5월 남구 진월국제테니스장 지하에 문을 연 1호점의 경우 지난해 월 평균 300여 명이 방문해 기부 4700여 건, 교환 3600여 건, 무료 나눔 7000여 건이 이뤄지는 등 시민의 참여와 호응이 높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따뜻한 지역공동체 사회 조성에도 특별한 역할을 했다.

2호점은 4년 만에 추가로 문을 여는 것으로, 광산구 송정동(광산로 62)에 동지를 쓴다. 광주시는 2호점이 시민의 거리상 접근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이용 편리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공유문화 확산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영희 시 출산보육과장은 24일 "아이들은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출산·육아용품을 모두 새로 구매한다는 건 비용적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도 크다"며 "2호점 개소로 기부와 무료 나눔이 지역에 더욱 확산되고 광주시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고혈압 예방·금연 캠페인 개최  
최했다.

광주시는 세계 고혈압의 날(5월17일)과 세계 금연의 날(5월31일)을 기념해 24일 유스퀘어 야외광장에서 민·관 합동캠페인을 개  
/광주시 제공

## 전남도 2023년 전국체전 마스코트·엠블럼 확정

목포종합경기장 등 5곳 경기장 건립...개·보수도 한창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THE 104th NATIONAL SPORTS FESTIVAL

전남도는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각각 10월 13~19일과 25~30일 열기로 하고, 구호와 마스코트, 엠블럼 등 대회 상징물을 확정했다고 24

일 밝혔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7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비롯한 도내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17개 시·도와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6일간 11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선수단과 임원 등 8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대회 구호를 '함께 뛰자! 전남에서, 같이 열자!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또 전남의 영문 이니셜인 'J'와 활활 타오르는 성화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청정전남,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가 비스듬히 전남의 모습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작품을 대회 엠블럼으로, 전남의 포근한 이미지와 아름다운 만남, 화합을 뜻하는 전남의 캐릭터인 '남도야 놀자'를 응용한 작품을 마스코트로 각각 확정했다.

전남도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위치를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체육대회 49개 종목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1개 종목의 종목별 경기장 배정을 마무리했다.

/박종배 기자

## 광주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시, 최대 3년간 고용·산재보험료 30% 지원

광주시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과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에 이어 올해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4차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신규 추진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9월부터 12월 까지 4개월간 모두 310개사에 1800

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시가 1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등 경영위기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률을 높이고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보험유지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30%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광주 지역 1인 자영업자로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권형안 기자

## 무안공항 국제선 운항 7월 재개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코로나19 등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제선 운항 재개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무안공항은 최근 일부 여행사에서 지난 5월 운항허가를 받고도 상대 국가의 방역상황과 승객 모집의 어려움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여행사에서는 무안-베트남 다낭 노선뿐만 아니라, 베트남 달랏과 나

트랑, 태국 방콕 등 동남아와 몽골 울란바토르의 7월 여행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4개월만에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허가 승인도 무난할 것으로 보여 무안국제공항의 7월 국제선 운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월 130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84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